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익산 찾아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 일환... 익산 공동초 주변 안전 점검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익산시 공동초등학교를 찾아 개학기 통학로 주변 위해요소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25일부터 오는 9월 26일까지 운영되는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지자체·교육청·경찰·시민단체 등이 함께 교통안전,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익산시 공동초등학교를 찾아 개학기 통학로 주변 위해요소 안전 점검에 나섰다.

현장에서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도내 42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집중점검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총 6,738건이 단속됐으며, 이 가운데 2,459건은 처분, 4,279건은 현장 계도로 이어졌다. 익산시는 공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및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현황을 보고했다.

윤 장관은 통학로 내 안내표지, 무인 교통단속 장비, 과속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확인했으며, 학교 인근 아파트 공사장 안전관리도 직접 점검했다. 공사 차량의 등하교 시간 운행 제한, 신호수 배치, 분진·소음 관리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인근 문구점과 분식점에 둘러 위생 상태, 소비기한

경과식품,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어린이 제품의 KC 인증 여부도 확인했다.

윤호중 장관은 “국가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정부는 개학기를 맞아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

요소를 세심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부송4지구 아파트 입주로 교통량이 크게 늘어나면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비 확보를 통해 통학로 구조를 개선하고,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도시 익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했다.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도 “이번 점검을 계기로 도내 초등학교 주변 안전 사각지대를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며 “도민과 함께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심화 교육으로 적극행정 추진 역량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의 실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의는 인사혁신처 2025 적극행정 강사단 소속이자 재미있는 교육컨설팅 대표인 정승호 강사가 맡았다. 정 강사는 전직 연극 배우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어 특유의 표현력과 몰입도 높은 강의로 교육생들의 기대를 모았다. 교육 과정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적극행정의 이해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전북형 적극행정 활성화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참여·토론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정기적인 심화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우수사례 발굴과 추가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조운정 전북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적극행정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한 발 앞선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악취관리 간담회 열고 현장 대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3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도내 시군 악취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악취 시료채취 실무역량 강화 간담회’를 열고 현장 대응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리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담당 공무원들의 정확한 시료채취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배출원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업장 복합악취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3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도내 시군 악취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악취 시료채취 실무역량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및 지정악취물질 시료채취 절차, △시료채취 지점 선정과 기상측정 자료 분석 방법, △민원 대응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참여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시군 담당자들이 실제 민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사례를 소개하고 연구원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은 실질적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됐다.

전경식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악취관리지역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원 현장의 다양한 대응 경험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겠다”며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철저한 악취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관광은 000이다”

도, 13일까지 관광브랜드 키워드 공모전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의 관광가치를 담아낼 ‘관광브랜드 키워드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도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 전북의 매력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발굴하고, 이를 향후 관광브랜드 슬로건과 디자인 개발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9월 3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전북의 관광은 000이다’라는 주제에 맞춰 전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제안하면 된다. 응모는 전

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모전 팝업창이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커피쿠폰이 증정된다. 선정된 키워드는 전북 관광브랜드 슬로건과 브랜드 디자인 개발, 나아가 대외 홍보에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관광브랜드 개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관광브랜드 목표와 전략 설정 △핵심 관광자원 분석을 통한 정체성 확립 △브랜드 차별화 전략 수립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슬로건 및 비주얼 디자인 △브랜드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이정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키워드 공모전은 도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 전북 관광의 새로운 이미지를 함께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라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매력적인 브랜드를 구축해 전북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 개발, 나아가 대외 홍보에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관광브랜드 개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관광브랜드 목표와 전략 설정 △핵심 관광자원 분석을 통한 정체성 확립 △브랜드 차별화 전략 수립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슬로건 및 비주얼 디자인 △브랜드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이정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키워드 공모전은 도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 전북 관광의 새로운 이미지를 함께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라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매력적인 브랜드를 구축해 전북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3일 원주군 산업단지 내 소방차량 제작 업체 대진정공을 방문해 소방차량 제작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 소방차량 제작 현장 살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3일 원주군 산업단지 내 소방차량 제작 업체 대진정공을 방문해 소방차량 제작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이오숙 본부장이 현장을 찾아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차량 특장은 기본 트럭 차체에 소방펌프와 물탱크 등을 탑재해 화재 진압이나 구조활동 등 특정 목적에 맞게 제작하는 과정으로, 현장 활동에 최적화된 장비를 갖추기 위한 핵심 단계다. 소방본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차량이 제작 단계부터 최고 수준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제작사와의 사후관리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했다.

현장에서는 특장 공병별 품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소방대원들의 요구 사항이 제작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도 세밀히 확인했다.

현재 대진정공에서는 탄소중형펌프차 2대와 중형화차 1대, 소형펌프차 1대 등 총 4대의 차량이 제작 중이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소방차량은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장비”라며 “제작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살피고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고, 적절한 시기에 노후 차량을 교체하며 장비를 확충해 완벽한 출동 태세를 갖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